

어느 여인의 고백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저도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인생의 쓰레기를 흠도 없는 처녀를 사랑하듯 사랑해준 남자를 만난 것부터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사람은 국민학교도 나오지 못한 고아출신의 무식한 광부였지만 죄많은 제가 세상을 떠들면서 만난 사람가운데 가장 선량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양복재단사였던 남편과 단란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로 남편이 불구가 되어 한참 지난 뒤 끝내는 사진관을 경영하던 청년과 함께 최악의 불을 저질렀고 자식과 남편을 버리고 청년과 함께 새벽기차에 오른 철면피 인간이 되었습니다. 어느 어촌의 헛집 접대부 노릇을 호구지책으로 하다가 그 청년을 3개월이 못되어 본색을 드러내 저를 괴롭혔고 감당할 수 없는 손찌검으로 일 년을 채 못 견뎠던 저는 혼자 또 다시 새벽기차를 타야했습니다. 이름도 없는 섬으로 흘러 들어가 섬다방에서 얼 굴마담으로, 도시로 나와 이 술집, 저 술집으로 흘러 다녔습니다.

32살이 되어 술집 여자들의 마지막 관문이라는 탄광촌으로 들어왔습니다. 거기서 선량하고 착한 그 사람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의 사랑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그는 광부생활을 하면서 개척교회를 짓고 있는 전도사님과 함께 교회 짓는 일을 돕던 교인이었는데, 막장에서 나오기가 무섭게 자갈을 나르고 벽돌을 찍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나에게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던 날 제 이야기와 너무 흡사하여 치마폭이 젖도록 울고 또 울었습니다. 거기다, 나같이 죄많은 인간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 너무도 고마워 밤새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러나 술집 작부를 사랑하는 그 사람을 보고 사람들은 반쯤이라고 조롱하고 무시하였습니다. 저 또한 그 사람을 사랑했지만 결혼해서 함께 살 꿈을 꿀 만치 철면피는 아내였습니다. 나는 이미 그 사람 모르게 새벽기차를 탈 예정을 하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탄광 사무실 쪽에서 비상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왠지 불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낙산사고였습니다. 이를 후에야 부상당한 고아부들이 구출되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은 죽어서 나왔습니다.

그는 죽기전 동료들에게 자기가 죽어 몸값이라도 나오면 교회와 나에게 나누어주고 내게는 남편과 아이들을 꼭 찾아가 살아야 한다는 마지막 유언을 남겼다고 동료들이 전해주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별레만도 못한 나에게 크나큰 사랑을 보여주고 죽어간 사람이었습니다. (광고 면으로 계속..)

교회목표 생명의 예수 삶의 기쁨	'이천년 교회생활: "주일에서 매일중심신앙" 갈보리 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심김과 봉사 *익명성 -명예
제 2권 34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0년 8월20일
☎269-8677/021-292-1639, ☒229A Ponsonby Rd. Ponsonby(Samoan Church)		

† 말씀과 삶

별거 아닌 것의 무게

비둘기와 참새의 대화입니다. “너 눈 한 송이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아니?” 참새는 계속해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느 날 큰 나무에 앉아 노래를 하고 있는데 눈이 오기 시작했어. 나는 심심풀이로 가지에 쌓이는 눈송이를 세어 보기로 했어. 눈송이가 8백 74만 1천 9백 52송이가 내려앉을 때까지 아무런 일이 없었는데, 그 다음 번의 한 송이가 내려앉자마자 그만 그 큰 나뭇가지가 부러지고 말았어.”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는 바로 이처럼 별거 아닌 것들에 대한 놀라움이다. 비겁했던 아브라함, 간사한 야콥, 무식한 베드로 다 별거 아닌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인류의 물줄기를 바꾼 사람들이 되었는지 모르겠다.

예수님은 별거 아닌 누룩의 중요성을 말씀하셨고 별거 아닌 5병 2어가 예수님 손에 들려졌을 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다.

별거 아닌 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큰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귀찮아도 한 번 더 당부한 말이 문제아를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고 파탄 직전의 부부가 한 번 더 참음으로 새로운 가정을 이루기도 한다.

때로는 산다는 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되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이 계속되어 쌓여 가정을 튼튼히 하고 내 자식들을 올바르게 기르는 것이 되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다.

테레사 수녀가 자주 했던 말은 “나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였다. 사실이지 그녀는 별거 아닌, 다른 간호사들과 다를 바 없이 병자들과 함께 나날을 보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별거 아닌 사람들이다. 그러나 별거 아닌 우리들이 조그마한 보람을 쌓아가다보면 테레사 수녀처럼 위대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별거 아닌 나 자신에 대하여 낙심할 일이 아니다. 한 송이의 눈이 우람한 나뭇가지를 꺾었다는 사실을 나의 것으로 하기 위하여 이 별거 아닌 나의 삶을 계속하고 꾸준히 할 것이다

주 일 예 배

- 영 광 송
Gloria
-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er
- 용서의 선언
Proclaim
- *찬 송
Hymn
- *성 시 교 독
Response Reading
- *신 앙 고 백
Apostle's Creed
- 교 회 소 식
Welcome & Announcements
- 찬 송
Hymn
- 기 도
Prayer
- 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
- 주 일 학 교
Sunday School
- 부부성가대
Couple Choir
- 설 교
Sermon
- 찬 송
Hymn
- *헌 금 기 도
Offertory Prayer
- *응 답 송
Response Song
- *위탁의 말씀
- *축 도
Benediction

"Calvary"
1.3절:다같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 다 같이
- 인 도 자
- 다 같이
- 다 같이
- 이영권 집사
- 아 동 부
- 부부성가대
- 김성국 목사
- 다 같이
- 인 도 자
- 다 같이
- 인 도 자
- 김성국 목사

34 장

50 (빌립 4장)

사 도 신 경

505장

요한 1:14

임마누엘의 믿음

394장
(마지막절은 일어서서)

"좋은신 하나님"

<8월 예배 위원>

일자	안내 헌금	기 도	teatime봉사
6	변지웅.한은영	한 은 영	김성국.이경석
13	최윤희.송정섭	김 영 태	이선우.이영권
20	이경석.한은영	이 영 권	최윤희.김효권
27	김효권.이영주	변 지 웅	정제정.한 건

'이천년 교회표어 "주일에서 매일중심신앙으로"
<실천사항>
*개인과 가정:매일 1/2성경읽기, 가정에배
*교 회:화요새벽기도회
*선 교:결식아동 3배지원, 해외선교지원

<등록규정>
*3주간 예배,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유로운 등록결정 판단을 위해
3주간 등록권유를 하지 않습니다.

주일예배 1:30 pm | 수요일예배 7:30pm(ST.Stephens) | 화요새벽기도: 6:00

교 회 소 식

- 1.성경완독 1년계획
*새로운 봄을 맞아 앞으로 1년간 성경개인완독 1회를 위해 9월첫주부터 실행합니다. 배부된 완독진행표에 따라 앞으로 1년간 개인이 친구와 성경을 1독하는데 완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2.교우소식
*김종암 집사, 한국방문키 위해 지난 12일 출국.
3. 아동부교사모임과 기도회
*25일 금요일 저녁 7:30 . Adria
4. 8월의 교회력
*6일(주일) 성찬식. 이삭줍기 봉헌
*12-13(토-주일) 가족신앙캠프
*26일(토) '약속의 아비' 첫모임
- 5.공통기도제목
1)학생부,청년부 조직위한 교사 위해
2)민지영 선교사,결식아동지원.
3)성경완독 1년계획

쓰레기 같은 인간을 조건 없이 사랑해준 그 사람을 통해 저는 살아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그리스도를 본 사람은 없지만 술집여자나 사랑하는 무식하고 반쯤인 그 사람을 통해서 저는 살아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작은 예수였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요" 오늘도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사람이 저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